



20
21

Vol.

06

유튜브 썸네일·제목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유튜브
섬네일·제목

04

양적 분석

06

내용 분석

14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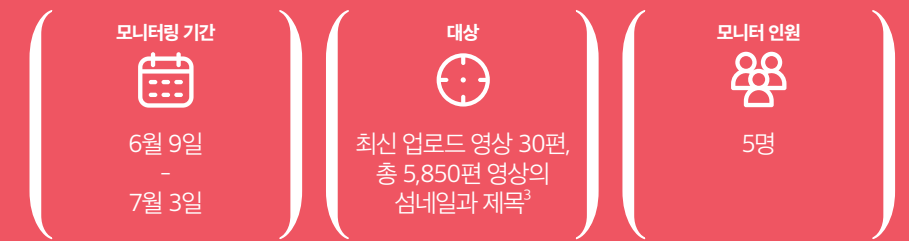
16

체크리스트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섬네일·제목 내용 분석 보고서

유튜브(YouTube)는 2020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이다.¹ 누구든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이를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는 전 연령대의 이용자를 불러 모으고 있다. 유튜브는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오락 공간이자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오락과 정보 제공이라는 유튜브의 주요한 두 기능은 이용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과급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² 것이 유튜브의 성차별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이다. 특히 유튜브의 섬네일과 제목은 이용자의 시선을 끌어 동영상을 재생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섬네일과 제목에 대한 주목도는 조회수와 직결되기에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용자가 흥미를 느낄만한 화면을 캡처하고, 이에 대한 짧은 설명과 제목을 덧붙여서 이용자의 이목을 끈다. 여기서 드러나는 성차별적 요소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인식을 강화하고 재생산한다. 특히 이 지점은 2019년 <유튜브 섬네일·제목 모니터링 보고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듯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시청한 동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끊임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성적대상화가 드러나거나 성차별적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계속 비슷한 영상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장르 분포

모니터링 대상 채널은 유튜브 순위 사이트 '튜브몬'(https://tubemon.io)에서 제공하는 2021년 5월 월간 조회수 200위 내 채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차트 내에서 순위가 누락되거나, 채널이 삭제된 경우를 제외한 195개의 채널을 모니터링하였다. 튜브몬 분류 기준에 따른 '미분류' 장르 채널이 58개로 가장 많았다. 튜브몬의 기준 범주로 분류되지 않거나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 한 가지 범주로 규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장르로는 키즈 채널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엔터테인먼트와 예능/코미디 장르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미분류 장르의 비중이 높아진 것 외에 조회수 200위권 내 채널 장르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표1 _____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장르 분포 (단위: 개수, 내림차순)

연번	장르	모니터링 채널 수	연번	장르	모니터링 채널 수
1	미분류	58(29.7%)	11	요리/음식	3(1.5%)
2	키즈	32(16.4%)	12	영화/애니메이션	2(1.0%)
3	엔터테인먼트	27(13.8%)	13	기업/단체	2(1.0%)
4	예능/코미디	18(9.2%)	15	VLOG/일상	1(0.5%)
5	뉴스/정치	17(8.7%)	16	경제/재테크	1(0.5%)
6	음악	9(4.6%)	17	그림/만들기/조립	1(0.5%)
7	먹방	7(3.6%)	18	댄스	1(0.5%)
8	게임	6(3.1%)	19	동물	1(0.5%)
9	ASMR	5(2.6%)	합계		195(100%)
10	스포츠	4(2.1%)			

1. _____ 연합뉴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은 유튜브...작년보다 사용량 20%↑, 2020. 11. 03.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3041600017

2. _____ 오세정,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인식 유형 연구: 유튜브(YouTube)를 중심으로」, 『주관성연구: Q방법론및이론』, 2021년 제55호, 47-67쪽.

3. _____ 국내 유튜브 5월 월간 조회수 상위 200위 채널별 최신 업로드 영상

[양적 분석]

1 유튜브 섬네일 제목의 성차별 내용

유튜브 섬네일 제목의 성차별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성차별적 요소가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것을 고려하여 중복 체크 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성을 보인 섬네일 제목의 사례는 93건이고, 이중 성적 대상화(도구화) 사례가 44건(4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젠더(성별) 고정관념이 27건(29%)으로 그 뒤를 이었고, 특정 개인/집단(대상)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감 표출, 젠더 폭력 정당화가 각각 8건(8.6%)으로 나타났다. 올해 유튜브 섬네일 모니터링 지표를 보완·변경하였기에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와 엄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2020년 유튜브 섬네일 및 제목 모니터링 시 성차별적 내용의 81%(52건)를 차지했던 성적 대상화(도구화)가 올해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여전히 심각하게 드러났다.

표2 ____ 성차별 내용 (단위:건/중복 허용)

성차별 내용	사례 수
젠더(성별) 고정관념	27(29.0%)
성적 대상화의 문제	44(47.3%)
젠더폭력 정당화/부각/강조	8(8.6%)
외모에 따른 차별*의 내용을 포함	6(6.5%)
특정 개인/집단(대상)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 표출	8(8.6%)
합계	93(100.0%)

2 유튜브 섬네일 제목의 성차별적 내용과 장르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미분류 장르를 제외하고,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많은 성차별 사례(18건)가 발견되었다. 엔터테인먼트 다음으로 뉴스/정치 장르에서 성차별 사례(17건)가 많다는 것이 눈에 띄는 지점이다. 문제가 된 뉴스/정치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의 사례가 6건, 정치, 시사, 뉴스 등을 다루는 개인 채널에서 11건 발견되었다.

4 ____ 외모에 따른 차별이란 외모를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함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축소하거나 비하하여 사람의 신체 특성에 대한 다양성의 가치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함. 특히 여성에게는 외모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게 드러남.

표3 ____ 성차별적 내용이 발견된 채널의 장르* (단위:개)

연번	장르	모니터링 채널 수
1	미분류	28(34.1%)
2	엔터테인먼트	18(22.0%)
3	뉴스/정치	17(20.7%)
4	키즈	9(11.0%)
5	영화/애니메이션	4(4.9%)
6	예능/코미디	4(4.9%)
7	스포츠	2(2.4%)
합계		82(100.0%)

성차별적 내용과 장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뉴스/정치 장르에서는 젠더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젠더폭력을 정당화 부각·강조하며,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표출하는 내용을 고루 발견하였다. 엔터테인먼트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내용은 대부분 성적 대상화의 형태로 두드러졌다. 키즈 채널의 사례는 전부 젠더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아동 출연자 혹은 아동 캐릭터에게 여성성과 남성성을 규정지어 강조하는 내용이 다수였다. 아동들이 이러한 섬네일에 지속 노출될 경우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발휘하기보다 전통적인 여성성, 남성성에 갇힐 우려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엔터테인먼트 장르에서 성적 대상화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2020년 모니터링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발견된 성적 대상화 사례가 모두 여성에 대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유튜브 내에서 조회 수를 높이는 자극적인 소재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4 ____ 성차별성과 장르의 상관관계 (단위:건/중복 허용)

구분	젠더(성별) 고정관념 조장	성적 대상화	젠더폭력 정당화 부각·강조	외모에 따른 차별 내용 포함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 표출	합계
미분류	7(20.6%)	21(61.8%)	1(2.9%)	5(14.7%)	0(0.0%)	34(100.0%)
뉴스/정치	6(28.6%)	1(4.8%)	6(28.6%)	0(0.0%)	8(38.1%)	21(100.0%)
엔터테인먼트	0(0.0%)	18(94.7%)	0(0.0%)	1(5.3%)	0(0.0%)	19(100.0%)
키즈	9(100.0%)	0(0.0%)	0(0.0%)	0(0.0%)	0(0.0%)	9(100.0%)
영화/애니메이션	4(100.0%)	0(0.0%)	0(0.0%)	0(0.0%)	0(0.0%)	4(100.0%)
예능/코미디	1(25.0%)	2(50.0%)	1(25.0%)	0(0.0%)	0(0.0%)	4(100.0%)
스포츠	0(0.0%)	2(100.0%)	0(0.0%)	0(0.0%)	0(0.0%)	2(100.0%)
합계	27(29.0%)	44(47.3%)	8(8.6%)	6(6.5%)	8(8.6%)	93(100.0%)

5 ____ 장르 분류는 튜브몬 홈페이지 (<https://tubemon.io/channel/chart/all/view/monthly>) 분류를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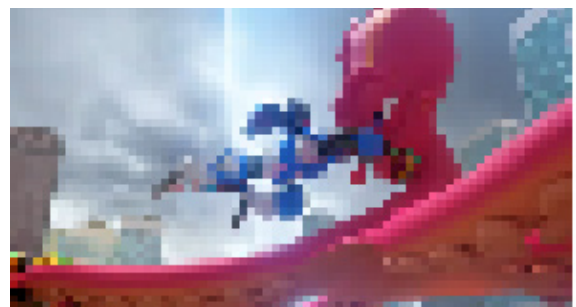
[내용 분석]

1 젠더(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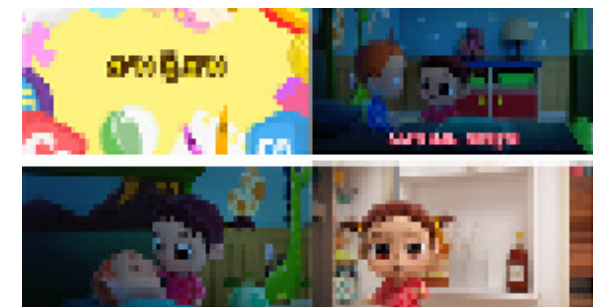
키즈 채널에서 드러나는 젠더 고정관념

키즈 채널에서 젠더 고정관념이 다수 발견되었다. 주로 캐릭터의 색상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짓거나, 특정 성별에 따른 역할을 제한하여 당연시하는 두 가지 형태가 대다수였다. 여자 캐릭터는 분홍색, 빨강색으로, 남자 캐릭터는 파란색, 남색 등으로 구분 짓고 있었다. 역할에 있어서도 남성 캐릭터는 '괴물'이라는 적을 물리치는 반면, 여자 캐릭터는 '공주 놀이'의 주인공이나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역할을 수행 하였다.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며 그 비중도 크지 않았다.

채널	프로그램명	분석
개인방송-키즈	[○○○○○:슈퍼공룡파워2] 배틀영상 - ○○○○○ VS 문어 괴물	아동 채널의 5인 히어로 팀 애니메이션 영상이다. 5인 중 여성 히어로는 1명이며,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된 분홍색 유니폼을 입었다. 유일한 여성캐릭터가 분홍색 유니폼을 입고 출연하는 영상을 아동들이 지속 시청할 경우 '분홍색은 여성의 색'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 있다. 외양 뿐 아니라, 적으로 등장하는 '문어 괴물'을 물리칠 때도 여성캐릭터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작전 지시나 필살기 사용 등 주요 역할은 모두 남성 캐릭터들이 담당한다.



채널	프로그램명	분석
개인방송-키즈	○○○와 ○○의 키즈 콘테스트 챌린지 놀이 ○○○ new dress and play in a beauty contest	여성 아동 출연자들이 출연해 여러 활동을 하고 이에 점수를 주는 내용의 영상이다. 특히 '메이크업' 분야에서 젠더 고정관념이 드러나고 있다. '공주' 콘셉트에 맞춰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화장을 하는 활동은 여성에 대한 젠더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방송-키즈	[○○○ ○○] 아기 돌보기 온가족 동요 같이 불러요 자장가 꿈나라 토닥토닥 ○○○ ○○ 동요	두 아이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서자 '누나가 코오~ 재워줄게'라며 남동생을 재우려고 한다. 동생은 자지 않으려 장난을 치고, 누나는 안절부절하며 이를 제지한다. 누나 캐릭터가 남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연출한 이 영상은 '돌봄'이 여성의 영역이라는 성별(젠더)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돌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주로 여성의 몫으로 표현함으로써, 영상을 시청하는 아동들의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각 캐릭터의 외양 역시, 여아는 분홍색 잠옷에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남아는 파랑색 잠옷을 입어 색상에 대한 젠더 고정관념을 드러냈다. 또한 '강조된 속눈썹'으로 캐릭터의 성별을 구분하는 고착화된 성별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정 성별에 관한 언어 고정관념

'여자어'는 여성이 사용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완곡어법을 뜻하는 왜곡된 표현이다. 이는 여성이 무언가를 말하고자 할 때 돌려서 말하며, 상대 남성이 눈치껏 그 말의 뜻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편견을 담고 있다. 개인은 다양한 위치와 경험을 지닌 존재들이기에 여성의 언어를 '여자어'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여성언어의 균일한 특징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발화 방식을 하나의 단일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일축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⁶

채널	프로그램명	분석
개인방송-예능/오락	[○○○○] 여자어	만화 속 남성은 “여자어 능력평가”를 한다. 여자어 능력평가는 ‘여자가 돌려 말하지 않는 말’, ‘여자가 화난 이유’ 등에 대해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맞추는 것이다. 모든 질문에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남성이 눈치껏 맞춰 주기를 원한다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전제되어있다. 이는 마지막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여자어’를 맞추려고 시도했던 남주인공이 여성에게 “네 비위 맞추고 살 바에 대학원생 돼서 교수님 비위나 맞추고 살지”라고 말하는 장면은 ‘여자어’를 이해하는 것이 여성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와 동일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채널	프로그램명	분석
개인방송-엔터테인먼트	○○○ ○○○○ - 댄서 ○○○ ○○ 공연 ○○ V 직캠(Fancam) 외 16건	해당 채널은 일반인 버스킹 또는 여성 아이돌의 무대 영상 중 신체 노출이 심한 부분을 섬네일로 선정한 동영상들로 채워져 있다. 공연 중 허벅지, 엉덩이,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가 부각된 순간을 포착해 섬네일로 사용한다. 이 장면들은 대부분 전체 영상에서 짧게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이용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전시하고 대상화하는 자극적인 장면을 섬네일로 선정했다. 이는 아이돌 가수의 가치를 음악이나 춤에 두지 않고 오로지 여성의 몸을 주목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해당 채널의 섬네일 대부분이 동일한 성적 대상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채널이 여성의 몸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대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2 성적 대상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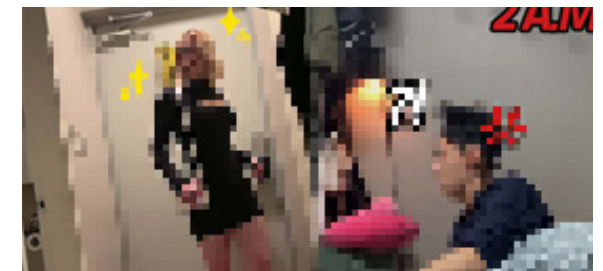
여성 아이돌의 직캠에서 신체 노출이 심한 부분을 섬네일로 선정

여성 댄스가수 등 아이돌의 직캠(직접 찍은 영상)을 주로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연 중 특정 신체 부위(허벅지, 엉덩이, 가슴)를 중심으로 촬영한 영상을 섬네일로 게시한 사례를 발견하였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해 만든 섬네일로 조회 수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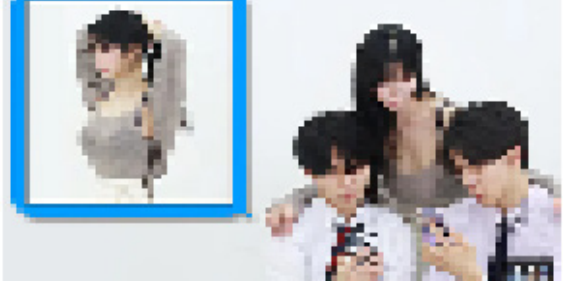

합동 방송한 여성 유튜버 또는 일반인 여성의 신체 일부를 강조한 이미지를 섬네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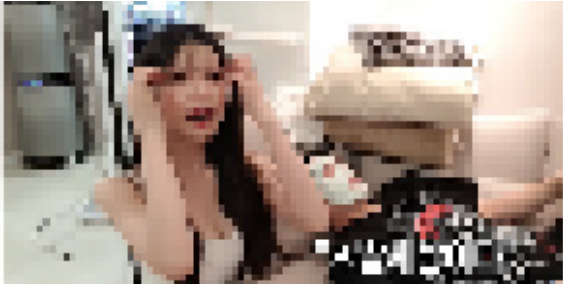
이 같은 섬네일을 가진 동영상은 주로 여성의 신체와 행동에 대한 남성의 반응을 살피는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이 같은 영상에서는 주로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채널	프로그램명	분석
개인방송-미분류	외국○ 여친○ ○○○ 새벽에 섹시한 옷 ○○ ○○○ ○ ○○○○○...	일상을 편집한 영상에서 여성 출연자의 신체를 강조하고, ‘섹시한 옷’ 등의 단어를 활용해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 섬네일에서 “2AM.”이라는 자막과 남성 출연자가 어리둥절하고, 화가 났다는 표시를 덧붙였다. 늦은 시간 외출하는 연인이나 가족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의 외출을 반복적으로 통제할 경우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통제가 당연시될 우려가 있다.



6 _____ 참고 기사: 이하나, [성평등 연애를 말하다①] 돌려 말하면 '여자어', 솔직히 말하면 '남자어?',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98>

채널	프로그램명	분석
개인방송-미분류	10대 남학생과 청순 글래머 ○○ ○○ ○ 입혀주기 데이트(어름 코디, 룩북, 데이트룩, 존예녀, 훈녀) ○○○○○○○ [ENG CC]	해당 채널은 십대 출연자들이 등장해 그들의 인식이나 반응을 공유하는 영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영상의 섬네일은 여성 출연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된 섬네일과 함께, '청순', '글래머'라는 제목을 사용해 조회 수를 유도하고 있다. 남성 출연자들이 자신의 욕구와 취향에 따라 옷을 선택하고, 그 옷을 여성 출연자가 입고 등장한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방송-미분류	"○○ ○○ 몸매가 취향○○?" ○○○ 남학생○○ ○○○○ 여자 몸매 ○○○○ [○○○ ○○]	십대 남성 두 명과 몸매를 부각하는 의상을 입은 여러 여성이 등장한다. 남성은 여성의 신체를 폄평하고, 자신의 선호에 따라 여성을 선택한다. 이는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가진 여성을 사회적 규범과 단일한 미의 기준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의 하나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요구에 맞춰 춤을 추거나 '뒷태'를 보여주는 등 동작을 취해야 한다. 해당 영상은 남성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들이 '솔직하고' '자유롭게' '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언급하며 여성을 간접적으로 대상화한다.  
		성별이 바뀐 동일한 주제의 영상이 해당 영상에 앞서(2개월 전) 게시되었다. 4명의 남성 출연자들의 몸매에 대해 십대 여성 출연자 2명의 선호도와 평가를 담은 영상이다. 이 영상 또한 위의 영상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신체를 평가하여 성적인 반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해당 채널은 2020년 8월, 십대 여성 출연자에게 남성의 몸을 만져보라고 유도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및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관련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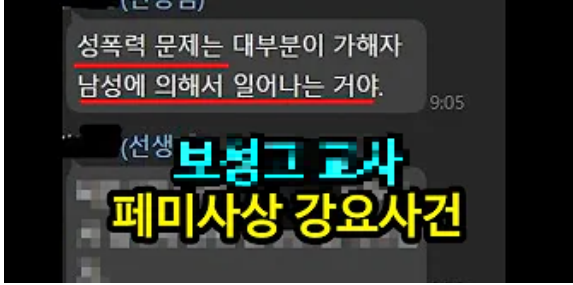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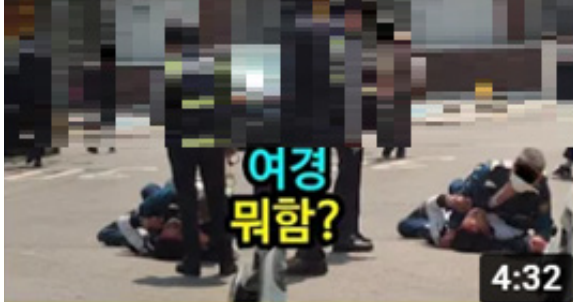
채널	프로그램명	분석
개인방송-스포츠	○○○ ○○ 행복하네요. /○○ 여비서 면접중에 생긴일.. /	해당 영상은 여성의 가슴을 강조하는 구도로 설정되어 있다. 채널 제작자이자 출연자인 남성은 여성의 집에 찾아가 집안일을 도와주고 여성의 귀를 청소해주는 등 여성이 원하는 부탁을 다 들어주며 여성이 남성에게 해주고 싶은 행위들도 모두 함께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계속해서 자신을 부러워하는 다른 남성들이 많을 것이라 설명한다. 가슴이 큰 여성,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여성과 친하게 지내고 신체적으로 가깝게 접촉하는 것이 다른 남성들에게 부러움을 살 일이라는 인식을 전제한다. 이를 통해 여성은 영상 속의 여성과 같은 몸매를 매력으로 치환하는 외모지상주의와, 몸매 좋은 여성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상 혹은 특권으로 여기며 여성을 대상화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제목에 "여비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불필요한 접두사 "여(女)"를 사용한 것뿐 아니라 실제 비서의 업무와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여성과 여성의 직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전달할 수 있다. 

3 성적 괴롭힘, 성폭력의 심각성을 경시한 사례

최근 유튜브 이용자가 증가하는 경향에 따라 언론사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스를 공유한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이 방송 뉴스와 다르게 제목을 선정해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다. 방송 뉴스와 다르게 유튜브 뉴스 영상에서 섬네일, 제목 등에서 폭력 피해 장면, 피해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올리거나 뉴스 내용과 관계없이 '처녀성' '여고생' '매춘부' 등의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성을 가진 뉴스 채널에서 성적 괴롭힘, 성폭력의 심각성을 경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해당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도 보도 준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7.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여학생들 모아놓고...막 나가는 요즘 유튜브>, 2020. 08. 2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3/202008230067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채널	프로그램명	분석
뉴스/정치	오물 붓고 촬영까지... 지적장애 여고생 집단폭행(2021.06.23/○○○○)	해당 기사의 섬네일은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피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제목에서는 기사 내용 전달에 불필요한 정보인 피해자의 성별을 기입했다.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국기자협회가 제시한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 피해 정도, 성별과 같은 정보들을 불필요하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뉴스/정치	예멘 20대 모델 후티 반군에 억류... '치녀성 검사까지 강요' / ○○○뉴스	섬네일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매춘부로 칭한 사실을 강조하며 '매춘부로 불리며 학대'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선정적 정보로서 부각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낙인찍는 표현이기에 문제적이다. 영상 제목에서는 반군에 억류당한 모델의 피해 양상을 설명하며 '치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문제적이다. 두 단어 모두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담은 용어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뉴스 채널에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보도 준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채널	프로그램명	분석
개인방송-뉴스/정치	○○○○ 원 페미	"○○○ 원 페미"라는 제목에는 남성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페미'라는 약칭 사용을 통해 페미니즘을 비하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인방송-뉴스/정치	오토케 여경 ○○ㅋㅋ	'여경 뭐함?'이라는 섬네일에서 접두사 '여'를 사용해 경찰이 여성임을 강조하였고, 여성 비하의 맥락으로 쓰이는 '오토케'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여성인 경찰에 대한 혐오, 적대감, 조롱을 표출하고 있다. 

4

특정 개인·집단(대상)에 대한 고정관념 및 부정적 인식

특정한 사건이나 현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혐오와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례를 발견하였다. 주로 여성 이슈와 관련된 논쟁이나 여성 경찰, 여성 교사에 대한 공격을 담은 주제에서 드러났다. 이는 특정 직업군 혹은 대상을 '여성'이라는 범주로 집단화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또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를 부정적 인식으로 언급하는 사례를 발견했다. '페미'라는 용어 자체를 비하와 혐오표현으로 사용하였다.

[나가며]

이번 유튜브 섬네일-제목 모니터링을 통해 섬네일과 제목에서 성적 대상화, 젠더 폭력의 요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회수와 ‘좋아요’ 등 이용자들의 관심이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과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특히 두드러졌던 부분은 ‘성적 대상화’와 ‘키즈 채널에서 드러나는 젠더(성별) 고정관념’이다. 성적 대상화 대상의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이때 여성은 개성을 가진 전인격적 존재가 아닌 특정 신체 부위가 분절되어 강조되거나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왜곡된 고정관념에 기반해 표현되었다. 특히 여성 아이돌 직캠 영상의 성적 대상화가 심각했다. 특히 성적 대상화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된 여성 아이돌 직캠 영상은 출연 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아이돌은 연예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무대에 선다. 하지만 이들을 성적 대상화하여 편집된 영상들이 온라인에서 확산, 유통될 때 그들은 유명세와 동시에 수많은 악플과 성적 괴롭힘을 겪게 된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되는 직캠이 댓글이나 SNS를 통해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성적 괴롭힘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채널이 여성의 몸을 이용하는 일종의 산업이 되어 가는 것에 비판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키즈 채널에서 보여지는 젠더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키즈 채널은 주 출연자가 실제 아동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주 시청자 또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영상에 출연하는 아동이 성인 제작자의 젠더 고정관념에 기반한 지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영상을 통해 주 시청자인 아동이 영상의 내용 및 연출 요소들을 수용, 모방할 가능성이 높기에 키즈 콘텐츠 제작 및 시청에 주의가 필요하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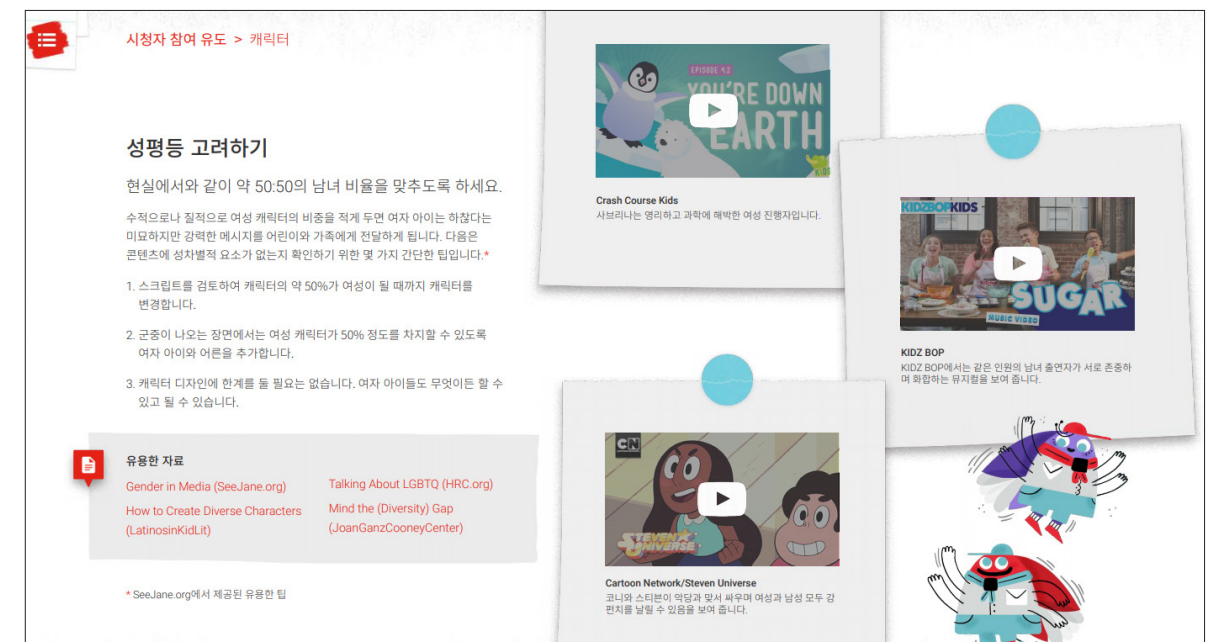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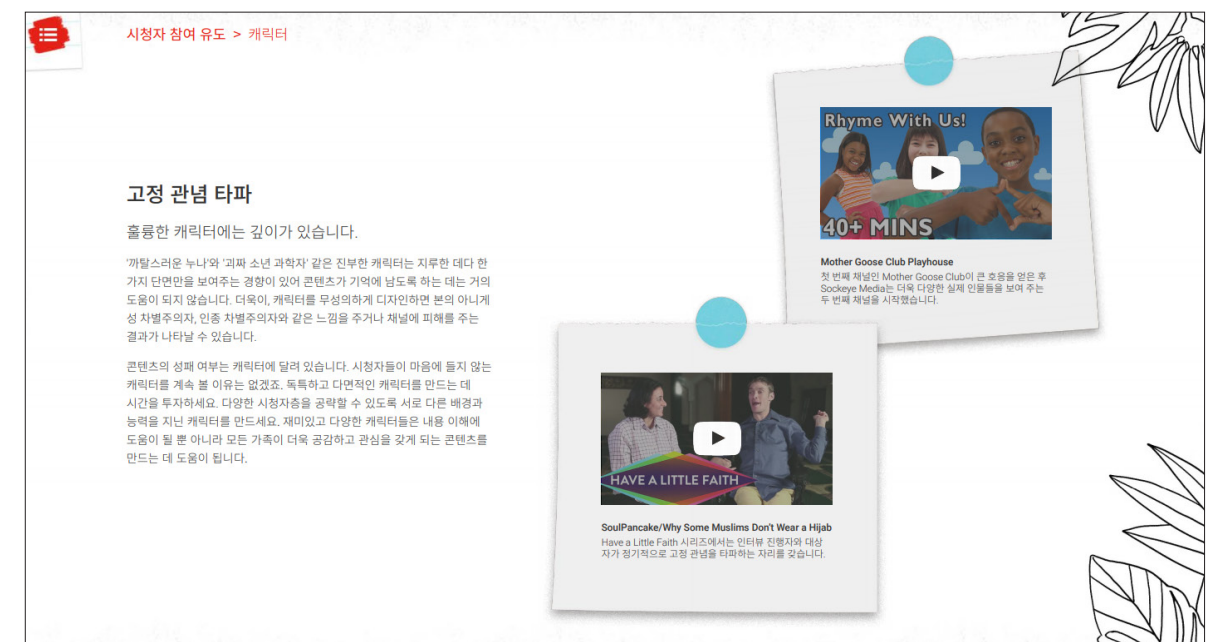
주요 시청자인 아동이 균형적인 젠더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비슷한 성비의 캐릭터가 등장해, 비슷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며 목표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키즈 콘텐츠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특성의 인물과 캐릭터를 보여주고, 성차별적이거나 인종차별적 내용을 경계하여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콘텐츠들이 과거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러한 콘텐츠는 결국 어린이들이 유튜브 시청을 통해 다시 고정관념을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성차별한 콘텐츠 제재와 크리에이터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효과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플랫폼 측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성차별 양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양상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유튜브 섬네일 및 제목에서 성차별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다. 상당수의 차별과 혐오 내용이 유머나 장난으로 희화화되어 그 심각성이 희석되고 있었다. 또한 실제 사실의 일부를 누락/왜곡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와 차별적 내용을 의견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여성 및 여성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등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는 다양한 연령대와 정체성의 이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는 중요한 미디어 플랫폼이다. 콘텐츠 생산자와 이용자가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유튜브의 영향력은 이미 전통적 미디어를 넘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앞으로 더 확대될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개인과 플랫폼이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책임 의식이 더욱 요구된다. 유튜브의 각 채널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방송사라는 의미로 읽힌다. 따라서 크리에이터에 해당하는 범주가 넓다고 해도 개인의 책임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성평등 의식을 갖고 창작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주도해야 한다. 현재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 페이지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콘텐츠, 교육 내용에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콘텐츠가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지 않은지, 특정 개인과 집단을 성적대상화 하거나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이용자에게도 콘텐츠를 즐기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리터러시의 역량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유튜브 썸네일제목

1. 모니터 요원 :

2. 모니터링 채널 요약

순위	채널명	장르

3. 성차별 내용분석

내용분류	채널명	영상 URL	썸네일	내용분석 (설명)

모니터링 지표

1. 썸네일에 제시된 글은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는가

- 성별에 따른 성역할 구분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 군인·경찰은 남성의 직업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간호사·교사 직업에 더 어울린다.
가장은 남성인 것이 당연하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성이 해야 한다 등
- 성역할 구분에 따라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가
- 특정한 성별은 특정한 속성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기 때문에 성역할 구분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 여성이 배려심이 많아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 남성은 폭력적이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한다.
여자아이는 상냥하고 친절해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유리하다.

2. 썸네일 글과 이미지에서 성적 대상화 양상이 드러나는가

- 신체의 일부 지칭어를 통해 여성 또는 남성을 표현
- 한 성별이 다른 성별의 성욕을 위해 존재한다고 표현
- 여성 또는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
예) 여성은 성적 욕망이 없다. 여성이 강간을 좋아한다
- 성희롱,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표현
- 여성 또는 남성과 관련된 성적 표현 중 기타

3. 썸네일 이미지에서 특정 성과 특정집단에 대한 폭력을 부각/강조하는가

- 피해자인 특정 성을 무력하게 묘사
- 피해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
- 기타

4. 외모에 따른 차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외모에 따른 차별이란 외모를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의 외모가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임. 여성/남성의 특성을 외모만으로 축소시키는 것, 외모를 기준으로 비하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특성에 대한 다양성 가치를 위반하는 것으로 부적절함

5. 특정 개인/집단(대상)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 표출

- 성차별적 멸시/모욕/위협 등을 위해 특정한 종류의 비하/차별표현 포함 여부
* 특정한 종류의 혐오표현 : 인터넷 밈(meme)으로써 확정되어 널리 공유되거나, 소규모 커뮤니티 혹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활용되는 혐오차별을 위한 용어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
최 봄 · 김예리 · 이지은
서울YWCA 여성운동국

감수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발행처
서울YWCA

협력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06)

유튜브 섬네일·제목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